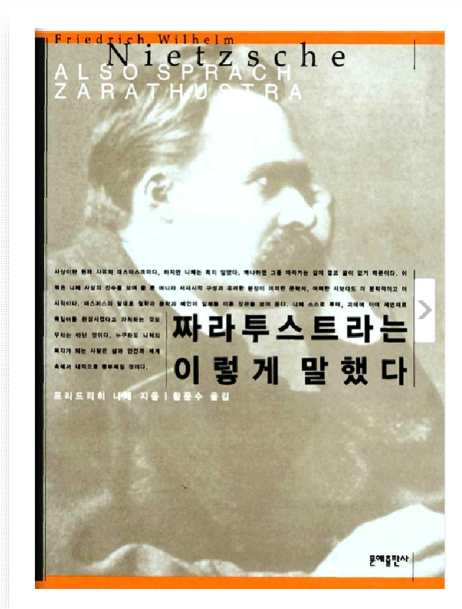


니체가 원하는 예술가를 위한 형이상학,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예술정보센터 소장자료 193니813ㅉ)



서양 철학자들 중에 무용을 형이상학, 윤리학, 미학 등의 이론에 비추어 보면서 그것의 심오한 의미를 사색한 인물을 찾기란 그리 쉬운 일이 아닐 것이다. 그러나 예외적인 인물을 꼽는다면 아마도 플라톤과 그로부터 23세기 후의 니체만이 언급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플라톤(기원전 427 ~ 347)은 무용(orchesis)을 뮤즈 여신들(mousai)에 의해 이루어지는 뮤즈적 예술(mousikē)을 구성하는 중요한 일부분으로 보아(*Nomoi*, II, 653d), 음악(ode)과 합쳐진 합창가무(choreia)(*Nomoi*, II, 654b)로서 젊은이들을 교육(paideia)함에 있어 없어서는 안 될 것으로 여겼으며(*Nomoi*, II, 672d ~ 673a) 선한 시민을 양성하고 정당한 사회를 이루는데, 즉 선(agathon)과 정의(orthotes)의 실현을 위해 무용이 꼭 필요함을 강조(*Nomoi*, VII, 814b ~ 817e)했기에 그러할 것이다. 그러나 니체는, 무용을, 플라톤처럼, 윤리적(도덕적) 관점에서 접근하지는 않는다. 즉, 그에게 무용예술이란 오롯이 심미적 평가(aesthetic appreciation)의 척도가 되는 것으로서 마치 <백조의 호수>처럼 무용수에 의해 시간을 통해 공간속에서 정체성을 획득해가는 예술적 대상(artistical object)이었다. 따라서 니체는, 플라톤과는 근본적으로 다르게, 오늘날 공연예술(performing art)이라고 불리는 무용의 유형(dance-type)을 사유의 대상으로 삼은 면에서 현대적인 무용의 미학자로 평가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니체(Friedrich Wilhelm Nietzsche, 1844 ~ 1900)는 예리한 심리적 통찰로 시대의 위기를 꿰뚫어 본 현대철학의 서장을 장식하고 있는 철학자로 실존철학의 계보에서 언급되곤 한다. 즉, 지금까지 가치 기준이었던 신에게 죽음을 선고할 만큼 기독교와의 대결에 의한 모든 가치의 전도를 그의 사상적 사명으로 삼을 만큼 급진적인 사상가로, 또한 세계를 물의미로 간주하여 니힐리즘을 철저히 파헤쳐 그것을 같은 의미의 영겁회귀(die ewige Wiederkunft des Gleichen)로 파악하고 선악의 피

안에 입각한 현실 긍정적인 강변을 설파한, 게다가 모든 생의 근저에 힘에로의 의지(Wille zur Macht)를 두고 그 구현자로서의 초인(Übermensch)을 등장시켜 새로운 철학으로서 현대철학의 길목을 다진 철학자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이성과 진보로 대변되던 계몽주의의 거대 서사가 자신이 살던 시대에 와서 붕괴 상태에 놓였다고 생각한 니체에 대해, 데리다(J. Derrida, 1930~2004)나 푸코(M. Foucault, 1926~1984) 등 20세기 후반의 프랑스 지식인들이 그의 저서들을 창조적으로 다시 읽음으로써 그의 사상이 포스트모던적임을 확인하면서, 니체의 사상을 '포스트모던 한 믿음들의 증조부'로 받아들여 그를 진정한 포스트모더니스트'로 자리매김하기도 한다.

그러나 미와 예술의 이론적 영역인 미학의 영역에 있어서 니체는 예술창작 상의 근본유형을 신화적 체계(아폴론적-디오니소스적) 속에서 구분하여 예술창작에 따른 예술가 및 예술작품을 유형적으로 구분한 미학자이기도 하다. 특히 미학사가 비어즐리(M. C. Beardsley)는 니체의 저서 『힘에로의 의지』(1901년에 1880년대 연구물에서 처음으로 편집된 저작)를 다음과 같이 — “여태까지 우리의 미학은 아름다운 것에 대한 경험을 예술지각자의 관점에서 규정하기만 하였다는 점에서 여성의 미학이었다. 여태까지의 철학 전체에서 예술가는 빠져 있었다.”— 인용하면서, “예술에 관한 니체의 모든 사유는 이전에는 무시되어 왔던 바로 이 영역에 초점을 맞춘다. 즉 그는 예술창조의 깊은 원천과 예술창작의 충동의 본질을 그 어느 때보다 더 깊숙하게 탐사하고자 했다.”(M. C. Beardsley, 이성훈·안원현 역, 『미학사』, 이론과실천사, 1987, p.322)고 평가하여, 미학사상 니체의 위치를 확실히 확인시켜주고 있다.

일반적으로 니체의 저작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Also sprach Zarathustra, 1883~1885)는 무용과 관련된 미학적 내용을 담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 사실, ‘철학적 산문시’라고 평가받을 만큼 시적으로 쓰인 이 저작은 비유와 상징, 그리고 패러디를 동원해서 서술되고 있기에 니체사상 전체의 이해가 있어야 읽을 수 있는 난해한 책 — ‘모든 사람을 위한, 그리고 누구를 위한 것도 아닌 책’이라는 부제에서 엿 볼 수 있듯이 — 이다. 이와 같은 ‘독특한 문체의 서술방식’은 니체 자신의 획기적인 철학적 전달방식의 도입’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이 책에서는 개념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사유와 사변이 전개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즉, ‘추상적 표상 안에서의 연역적 서술방식 대신’에 그때그때 움터 오르는 것을 직접 표현하는 방식을 보이고, 이론가의 담론 대신에 ‘예언가와 시인의 목소리가 들릴’ 뿐이기 때문이다.

총 5부로 구성되어 있는 이 책은 일관된 주제로 전개되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니체는 자신의 저작의 해제서 격인 『이 사람을 보라』(Ecce homo, 1888) 중,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부분에서 자신의 이 책은 근본 착상, 즉 영원회귀(ewige Wiederkunft)의 사상을 다루고 있음 — 특히, 제4장 마지막 바로 앞 장에서 — 을 밝히고 있다. 또한 “이 작품은 참으로 독특한 것이다. (...) ‘디오니소스적’이라는 나의 개념이 여기에서 최고의 행위가 되었다”(니체, 『이 사람을 보라』, 성동호 역, 『비극의 탄생 / 이 사람을 보라』, 홍신문화사, 1993, p.274)고 밝히고 있듯이, 이 저작은 ‘짜라투스트라’라는 인물을 통해 ‘춤추는 디오니소스’에 의한 영원회귀의 사상을 드러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왜? 짜라투스트라(Zarathustra)일까? 니체는 불을 숭배하는 조로아스터교의 창시자의 명칭을 따서 자신의 책 제목에 '짜라투스트라'를 사용하고 있다. 더욱이 니체 자신이 절대적 선, 도덕규범을 강조하는 종교와는 정반대의 길에 서 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종교성이 짙은 명칭으로부터 한 인물의 성명을 작명했다고 보여 진다. 따라서 짜라투스트라라는 기존의 전통적 도덕을 수립한 사람으로서 그와 같은 내용 또한 잘 알고 있는, 그래서 전통적인 이분법이 허구라는 것 또한 잘 알고 있는 인물이며, 앞으로 새로운 도덕을 설파하려는 사람으로 그려지고 있다. 게다가 이 짜라투스트라 인물은 니체 자신의 사상을 감정이입 시키는 존재로 묘사되고 있다. 왜냐하면 니체는 『이 사람을 보라』(*Ecce homo*, 1888) 중, '나는 왜 운명이어야 하는가' 부분에서, 짜라투스트라에 대해 "'선과 악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먼저 파괴자가 되어, 수많은 가치를 분쇄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리하여 최고의 악은 최고의 선에 속한다. 이러한 선이 창조적인 선인 것이다.' 나는 지금까지 생존했던 인간 중 가장 무서운 인간이다. (...) 나는 내가 파괴하는 힘에 알맞을 만큼, 파괴하는 기쁨을 알고 있다. 어느 경우에도, 나는, 부정을 행하는 것을 긍정하는 것으로부터 떨어져 나갈 수 없는 나의 디오니소스적 본성에 따르는 것이다. 나는 최초의 반도덕가이다. 그러므로 나는 지상의 파괴자이다"라고 하면서, 디오니소스적인 본성을 자신과 짜라투스트라의 공통점으로 보고 있다. 결국, 니체는 "짜라투스트라는 이름은, 다른 사람이 아닌 최초의 반도덕가인 나의 입을 통해 본다면 무엇을 의미 하는가"라고 반문하며, "짜라투스트라는 이 가장 숙명적인 오류, 즉 도덕을 창조했다. 따라서 그는 또 이 도덕을 인식하는 제1의 사람임에 틀림없다. 그가 이 점에 있어서 다른 어떤 사상가보다도 길고 풍부한 경험을 갖고 있었다는 것뿐만이 아니고 — 모든 역사는 이른바 '도덕적 세계질서'라는 명제의 실험적 반박이었던 것이다"(니체, 『이 사람을 보라』, 성동호 역, 앞의 책, pp.299 ~ 300)라고 이 인물의 성격을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니체 자신의 감정이입 대상인 이 짜라투스트라는 초인(Übermensch)과도 연결되고 있다. 니체는 『이 사람을 보라』(*Ecce homo*, 1888) 중, '왜 나는 이렇게도 좋은 책을 쓰는가'에서, 니체는 "초인이라 하는 말, 그것은 '근대적' 인간, '선인'(善人), 그리스도교 및 그 밖의 니힐리스트와 대립하는 가장 훌륭한 수확의 전형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도덕의 절멸자인 짜라투스트라와 같은 자의 입에 오르게 된 경우에는 극히 뜻 깊은 것으로 되는 이 말이 거의 도처에서 더없이 천진하게 짜라투스트라의 모습에 나타나 있는 것과 상반되는 가치의 의미로 풀이되고 있다. 말하자면 고급 인간의 '이상주의적' 전형, '반성자'(半聖者)·'반천재'라고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라고 밝히고 있듯이, 짜라투스트라는 초인과 관련이 있는 인물로 설명된다. 니체는 초인을 '대지의 의미'라고 외치는 짜라투스트라의 모습으로 묘사한다. 이때의 초인은 인간의 삶을 정당화하는 임무를 맡으며, 인간 역시 초인이 나타내는 길을 예비하는 과제를 맡는다. 이렇게 볼 때 초인이라는 개념은 '인간을 넘어 저쪽에 존재하는' 어떤 것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인간에 의해 표현될 수 있는 운명애(amor fati)의 태도', 즉 짜라투스트라의 무용에 의해 상징화되는 그런 태도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니체에게 '짜라투스트라는 한낱 무용수인 것이 대!'(니체, 『이 사람을 보라』, 성동호 역, 앞의 책, pp.230 ~ 231).

니체는 짜라투스트라는 인물을 통해 호메로스에서 본 것과 같은 반신(半神)으로서의 예술가의 모습, 즉 진정한 인간의 모습을 읽고 있다. 몸짓의 언어로서 무용은 가장 인위적인 예술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발끝으로 서서 하늘을 향해 비상하는 것과 같은 모습의 발레는 더욱 그렇다고 할 수 있다. 모든 인간은 대지에 입맞춤을 하며 대지를 벗어나지 않으려는 존재감을 안고 살아간다. 그러나 무용은 이러한 대지의 품에 대해 중력을 거부하는 몸짓으로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려고 안간힘을 쓴다. 니체는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제3부 '중력의 영(靈)에 대하여'(Vom Geist der Schwere)에서 중력을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다.

“중력의 영(靈)은 불구대천의 적이다. 나는 그것이 창조한 모든 것 이룰테면 강제, 율법, 필요와 귀결, 목적과 의지, 선과 악을 뛰어넘고자 한다. (...) 나는 하늘을 날아갈 준비를 하고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다. 나의 천성이 이러한데 어찌 그것이 새의 천성이 아니겠는가. 무엇보다도 나는 중력의 영에 적의를 품고 있는데, 그것만 보아도 새의 천성이 분명하다. 나는 진정 중력의 영에 불구대천의 적의와 으름가는 적의, 그리고 뿌리 깊은 적의를 품고 있다.”

여기서 니체는 짜라투스트라의 입을 통해 '중력은 영혼에 대한 적이다'라고 말한다. 그러나 '중력의 영혼'이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여기에서 '중력의 영혼'은 '모든 인생의 짐'을 상징한다. 그래서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제2부 '춤의 노래'(Das Tanzlied)에서 니체는 “사람들이 '세계의 주인'이라고 부르는 나의 최고 최강의 악마, 중력의 정령에 조롱하는 춤의 노래”를 요구한 것이다. 따라서 운명에 대한 완벽한 사랑은 이 중력의 영혼을 정복하고 난 승리를 의미한다. 니체는 그 승리를 제3부 '일곱 개의 봉인'에서 춤과 비상의 웃음, 노래 등으로써 묘사한다. 즉,

“나의 덕이 춤추는 자의 덕이라면, 그리고 내가 자주빛 황금과 에메랄드의 환희 속으로 뛰어 들어가 보았다면, 나의 악의가 웃음을 머금고 있는 악의이고 장미의 언덕과 백합의 울타리를 제 집으로 하고 있다면. 웃음 속에 온갖 악이 서로 이웃하고 있지만 악은 그 자체로 행복을 통하여 신성시되고 사면되기 때문이다. 무거운 모든 것이 가볍게 되고, 신체 모두가 춤추는 자가 되며, 정신 모두가 새가 되는 것, 그것이 내게 있어서 알파이자 오메가라면. 진정 그것은 내게 있어서 알파이자 오메가다!”

이렇게 볼 때, 짜라투스트라는 죽지 않는다. 니체의 이러한 사상에서 무용에 대한 형이상학적 의미의 '영원불멸성'이 강조되곤 한다. 이 의미는 인격적인 영원불멸에 대한 믿음, 인간의 죽음에 대한 도전 등 다양한 형태를 뜻한다. 그리고 만약 무용수가 스스로를 신이라고 느낀다면 이것 또한 그렇게 놀랄 일이 아니다. 왜냐하면 신은 죽지 않기 때문이다. 자신들의 죽음을 인정하는 사람들조차도 그 사

실을 무시하기 위해 춤을 춘다. 이 또한 그들이 죽음을 비난하는 정신력을 성취하는 한 춤추고, 도약하고, 날고, 자신들의 육체를 통제할 수 있는 한 그들은 그런 죽음의 사실을 문제 삼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니체에게 있어서 '대지는 무용수의 진정한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듯하다. 그러하기에 니체는 짜라투스트라를 중력의 영을 담고 있는 대지 위에 우뚝 세워 웃으며 춤을 추게 한다. 아니 니체 자신이 이제 흥겨운 춤을 춘다.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에서 자신만의 강력한 춤을 흥겹게 추고 있다.

니체의 만년의 저서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에서의 무용에 관한 그의 사색은 '서구의 근대가 현대로 진입하는 관문에서 마르크스, 프로이트와 더불어 로고스에 정초한 철학이 탄생한 이래 서구가 구축해온 이성적·합리적 세계관에 의문을 제기하고 그 파괴를 주도한 대표적 사상가들의 하나로 인식'될 수 있을 만큼의 내용을 담고 있는데, 여기서 그는 객관적 진리를 주장하지 않는 예술을 통해, 즉 가상의 세계를 구성할 수 있는 예술의 힘을 통해 새로운 세계관을 모색하는 것처럼 보인다. 이러한 사실은 제1부 '몸을 경멸하는 자에 대하여'(Von der Verächtern Leibes)에서 몸을 '하나의 거대한 이성'으로, 그리고 몸이 곧 '나이며 영혼'으로 간주하며 '몸-이성'(Leib-Vernunft)의 사상을 펼쳐 보이는 가운데 몸짓의 언어로서 무용에 관한 자신만의 견해를 드러내고 있다. 니체는 이 책에서 지금까지 서구지상사가 추구해온 진리에 대해 그 허구성을 지적한다. 진리의 허구성을 투시하는 철학자 니체에게 있어 탈출구는 예술이다. 예술은 가상이다. 니체에게 있어서 예술적 가상은 철학의 개념적 진리를 능가한다. 니체는 이와 같은 가상으로서 예술에 대해 어떤 종류의 로고스보다 우월한 지위를 부여한다. 따라서 니체에 있어서 예술은 철학을 능가하는 인간행위의 한 영역으로 부각된다. 그것도 어떤 예술인가? 지금까지 정신의 대척점으로서 홀대받아온 '몸'에서 이루어지는 무용예술인 것이다! 이렇듯 니체는 예술을 통해, 그것도 몸짓의 예술인 무용을 통해, 비철학적 철학의 사유를 디오니소스적 충동에서 춤추듯 대지를 지르밟으며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에서 펼쳤던 것이다.

예비예술가로서 예술창작에 전념하고 있는 우리들이, 한번쯤은, 니체의 이와 같은 예술을 향한 사색에 대해 곰곰이 곱씹어 볼 여유를 갖는 것은 어떨까? 이제 그가 들려주는 예술가를 위한 형이상학의 한마디에 귀 기울여보자!

"나는 너의 길을 가지 않을 것이다. 너희 몸을 경멸하는 자들이여! 너희들은 초인으로 인도해 주는 그 어떠한 다리들이 아니기 때문이다." (제1부 '몸을 경멸하는 자에 대하여' 중에서.)

" (...) 짜라투스트라로 하여금 눈물짓고 노래 부르게 한다. 나는 춤출 줄 아는 오직 하나의 신만을 믿으려 한다." (제1부 '독서와 저술에 관하여' 중에서.)

이 승 건 (예술창작기초학부 교수 • 미학전공)